

# 식품업계 '퀵시니어 마케팅' 시대

## QR코드로 성분 안전성 확인... 꼼꼼한 소비자도 만족!

식품의 제품 성분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따져 구매하는 이른바 '퀵시니어' 소비자들이 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성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도입한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퀵시니어는 '소비자(Consumer)'와 '엔지니어(Engineer)'의 합성어로 제품의 원산지, 성분, 생산과정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기가과자부터 생산과정을 담은 동영상 QR코드를 삽입한 도시락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퀵시니어 제품을 살펴봤다.

매일유업 맘마밀 '알러체크시스템' 적용된 유기농 쌀떡볶이 출시  
CU 도시락 2종...QR코드 스캔하면 생산과정 동영상 확인 가능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기가과자, 생산과정을 담은 동영상 QR코드를 삽입한 도시락 등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맘마밀 요미요미, 맘마밀 안심 이유식, 증가집 장단콩두부, CU도시락(위부터 시계방향).

### ●매일유업, 아기가과자 이유식에 '퀵시니어 시스템' 구축

매일유업의 유아식 전문 브랜드 맘마밀은 엄마 퀵시니어들을 위해 아기가과자와 이유식에 식품 안전성을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맘마밀 요미요미는 식품알레르기 유발 성분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엄마 퀵시니어들의 니즈에 맞춰 '알러체크 시스템'이 적용된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 쌀떡볶이'를 출시했다. 알러체크 시스템은 국내 최초(6월 기준)로 5대 식품알레르기 유발 성분(유유·계란·대두·밀·땅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기가과자를 시작하는 6개월 월령은 엄마들이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임을 감안해 맘마밀은 엄마들의 니즈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품 패키지 내 삽

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는 5대 식품 함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조일자별로 파악할 수 있어 아기가과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맘마밀은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해 맘마밀 안심 이유식이 구축한 '맘마밀 안심정보공개 시스템'의 과정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맘마밀키친 안심투어를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 ●생산 과정 동영상 QR코드·생산이력제

원료의 품질 및 생산 과정의 철저한 관리를 내세워 품질을 강조하는 제품도 눈에 띈다. 편의점 CU의 '진짜짜짜장밥', '진짜아카레밥'은 토핑을 강화한 프리미엄 도시락이다. 두 제품의 도시락 제품패키지 QR코드를 찍으면 위생적인 도시락 생산 과정을

답은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락은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지만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양성분을 표시하며 맛과 영양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상 FNN 증가집의 '파주 장단콩두부'는 민간인 통제구역이자 청정지역인 DMZ에서 재배한 장단콩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다. 파주시와 함께하는 공동브랜드로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생산부터 수확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도 확인이 가능하다. 100년 전통의 파주 장단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기질 함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기질 함량 2배, 항암성분인 이소플라본은 50% 이상 높아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하이트진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하이트진로가 9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약 6주간 전국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외식업 및 식품 창업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9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하이트진로 청년창업리그 홈페이지(www.hitejinrocontest.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팀으로 지원할 시에는 팀별 최대 4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공모주제는 외식업, 식품 브랜드, 식산업 관련 식품 물류 및 유통 아이디어 등의 제안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 마케팅 아이디어, 매장 인테리어 등 추가 내용 포함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하이트진로는 사업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1차에 선정된 청년들은 10월28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으며 최종결과는 11월12일에 발표된다. 대상 1팀 1000만원, 최우수상 1팀 500만원, 우수상 3팀 100만원, 장려상 4팀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원성열 기자

## 프링글스 '또띠아 콘칩' 4종 출시



프링글스가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옥수수로 만든 신제품 '프링글스 또띠아 콘칩' 4종(오리지널·사워 크림 앤 허니·나초 치즈·스파이스 그린페퍼·사진)을 출시했다. 프링글스 또띠아 콘칩은 옥수수를 갈아 얇게 반죽해 구운 멕시코의 대중적인 간식 또띠아 칩을 구현한 제품으로 옥수수 본연의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링글스를 상징하는 원형 칩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프링글스 원통형 캔에 멕시코 스타일의 디자인을 담아 흥겨운 '피에스타(파티)' 분위기를 표현했다. 프링글스 또띠아 콘칩 4종은 110g 용량에 가격은 할인점 기준 2730원, 편의점 기준 3300원이다.

원성열 기자

## 금융

# 10년 납입 자신 없으면 '변액보험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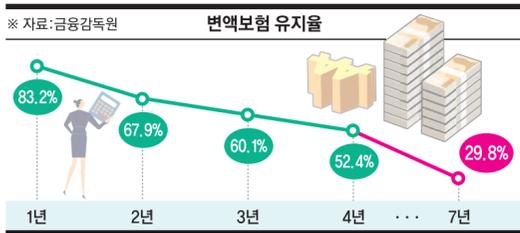
원금보장 기간 약 8~13년 소요  
펀드 수익률도 10% 넘기 힘들어

만일 내게 매달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초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 가운데 하나다. 은행권의 1년 이자가 대부분 1%에 머무는 현실에서 돈 내 돈을 크게 불러줄 방법은 많지 않다. 몇몇은 목돈을 마련해줄 방법으로 펀드 혹은 변액보험으로 눈을 돌리지만 이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다. 만일 원금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거나 10년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 변액보험에는 눈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차라리 여윌 돈을 가지고 있거나 저축이 지금이어서는 최선의 대책이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상품을 표본조사한 결과 원금보장 기간이 8년에서 13년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수익률 3.25%(공시이율)인 상품을 기준으로 변액보험의 해지환급률을 환산했지만 저축성 연금은 9년, 종신형은 13년은 지나야 원금 손실이 없었다.

10년 넘게 투자해도 원금을 보전받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낮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펀드 운용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생명보험사 25개사를 상대로 변액연금보험 펀드 운용현황 서면보고서를 제출받아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공시를 통해 '빅 3' 보험사의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을 점검한 결과 상품별로 수익률 편차가 컸다. 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의 국내 주식형 16개 상품의 3년 수익률 가운데 4개는 마이너스였고 10개는 10%를 넘지 못했다. 한화생명도 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국내주식형 상품은 없었지만 6개 가운데 4개는 원금도 못 건지는 수준이었다. 교보생명도 국내 주식형 펀드 전부 3년 수익률이 10%에 못 미쳤다. 펀드 등을 비롯해 보험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2013년 4.6%에서 올해 1분기 3.9%로 감소 추세다.

보험사가 발표하는 공시수익률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뒤 실제 펀드에 들어가는 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다. 보험사들이 사업비 등으로 미리 가져가는 돈은 8~15% 정도다. 납입보험료에서 설계사에게 주는 모집 수수료 등 사업비와 보험사에게 대비한 위험보험료를 미리 떼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을 특별계정에 투입해 펀드에 투자한다.

1년간 100만원을 내는 보험의 공시수익률이 2%라면 소비자는 102

만원을 받을 거라 기대하지만 아니다. 8~15%의 먼저 가져가는 돈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90만원 정도다. 최소 15% 이상의 펀드수익률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 중으로 보험사의 변액보험 펀드 운용실태를 점검 점검할 필요성 즉각 시정조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나선다고 해도 초저금리 시대에 뾰족한 방법은 없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투자할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도 변수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유지율은 1년 83.2%→2년 67.9%→3년 60.1%→4년 52.4%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7년 유지율은 29.8%에 그쳤다.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큰 변액연금에서 해지 때 자신이 그동안 냈던 보험료와 비교해 원금을 보장 받는 기간은 최소 9년이다. 이 바람에 현재 변액연금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원금을 커녕 손해를 봤다.

지금 여유돈이 있더라도 변액연금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할 이유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금융감독원의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1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 알림 서비스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사

## 신용카드 한도초과·축소 등 SMS로 즉시 통지

금융감독원,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 투자상품 손실확대 위험 등도 공지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사용한도 초과입니다."

모처럼 가족과 외식을 마친 뒤 계산하려고 하는데 카운터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11월부터 이런 민망한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카드회사는 해당 사실을 제때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금융알림서비스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시 사전통지 ▲대출 우대금리 적용조건 미충족시 SMS로 즉시통지 ▲투자상품 손실확대 위험 등 알림서비스 강화 ▲연금지속 중도해지시 납부세금, 예상연

금역 통지 등이다.

그동안은 카드회사가 이용정지·한도 축소·해지 때 그 사실을 고객에게 3영업일 이내를 기준으로 사후에 통지해줬다. 그 바람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드회사는 지난해 1623만 건, 하루 평균 4.5만여 건의 카드이용을 정지시켰다. 11월부터 카드회사가 이용정지 사유 등을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카드 직권해지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0영업일 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일부 카드회사만 하고 있는 승인 거절 알림서비스도 확대해 한도초과 등에 따른 카드 승인거절 사실 등을 고객에게 SMS로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권은 대출금리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

카드사의 은행·저축은행은 지난달의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

적 등을 충족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앞으로는 금리변동 사실 및 사유를 SMS·스마트폰 앱·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세계 혜택이 있는 연금 저축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지내용 등 중요정보를 추가하고 ▲대출 기간 중 취업이나 소득증가 등으로 고객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알리고 ▲만기보험금 발생 사실은 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알리도록 했다.

그동안은 몰라서 혹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봤지만 이제는 금융권이 나서서 그런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김종건 기자 bong82@donga.com